



대한민국 바로 알리미 반크 (VANK) 박기태 단장

매년 삼일절이면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초개같이 버리고 산화하신 순국선열의 고귀한 업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이러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아래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사회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냉엄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동북공정, 독도문제 등 주변 열강들의 터무니없는 주권침해 행동들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에 맞서 21세기 새로운 의미의 대한민국 주권수호를 외치는 '대한민국 바로 알리미' 반크(VANK)의 박기태 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김강희(본지기자)

● 반크(VANK)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까지 와서 휴식을 취한다는 성서 구절을 접한 뒤부터입니다. 반크의 출발은 1999년 1월에 겨자씨처럼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한 저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 젊은이들과 이메일 펜팔을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미국, 유럽 대학의 아시아 관련 학과 웹사이트 게시판에 영어 소개서를 띄웠습니다. “나는 월드컵이 열리는 한국의 젊은이다.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사귀고 싶다” 하루에 수십 통의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보내주며 “한국의 위치를 가르쳐 달라”는 친구가 있는가하면 “한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으니 중국인들과 피를 섞었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외국인들이 보는 세계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 있으며 그들이 접하는 교과서와 웹사이트에 한국이 중국 식민지로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해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말이고 광개토 대왕, 장보고, 왕건 등도 “한국만의 역사”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의 삶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시간들로 전환되었습니다. 반크의 겨자씨는 그렇게 싹트었습니다.

●● 반크라는 조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내 1만 명, 해외 거주 5천명의 반크 인이 함께하고 있으며 그 조직은 사이버 외교관 교육부, 국제협력부, 국제교류부, 국제지원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국민 사이버 외교관 양성사업 | 한국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라는 사실을 해외 현지에서는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가이미지가 국가홍보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때 그간 불특정다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나 기업주도로 진행되어왔던 국가홍보방식에서 탈피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외국인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 외교관을 민간

차원에서 육성합니다. 우선 1단계로 20만명의 사이버 외교관을 육성하여 1인당 5명씩 모두 100만명의 해외네트즌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 문화, 역사, 관광 정보에 관한 한국이미지 개선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사이버 외교간 양성 단행본을 통해 7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흠어진 650만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외교관 활동에 동참시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범국민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시켜 나갑니다.



해외 e펜팔친구 사귀기 운동 | 인터넷 친숙도와 활용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친구들과의 인터넷 교류를 주선함으로써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시야와 감각을 배양합니다. 반크는 청소년들의 해외펜팔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풀뿌리 한국 홍보활동으로 한국을 '내 친구의 나라'로 인식시킵니다.

오류 시정 프로젝트 사업 | 수십 년간 전 세계 교과서 및 출판물을 통해 확산되었던 왜곡된 한국정보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반크는 교과서와 같은 출판물을 통한 오프라인상의 오류확산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의 심각한 오류파급력을 인지했습니다. 오류시정 프로젝트는 이런 실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한국 관련 오류확산을 조기에 진화합니다.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영향력이 큰 해외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크는 영향력이 큰 외국 현지 대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여 한국에 대한 관광, 문화, 사회, 교육, 경제 정보를 현지 거주 외국인들

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합니다.

사이버 국제 학급 교류 사업 |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일선학교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른 문화권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를 추진하는 '이메일 학급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크는 청소년들에게 전 세계 해외학급 학생들과 단체교류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주입식 수험 위주의 교육 때문에 목적도 없이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는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시야와 감각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고장 포토제닉 사업 | 대한민국은 반만 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시간 만큼이나 빛나는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반크는 인터넷을 통해 내 고장의 관광지, 역사 유적지, 문화재를 담은 사진을 DB로 만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모습을 해외 네티즌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발전된 우리나라의 모습, 아름다운 우리 강산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국 홍보자료 검색엔진 구축 사업 | 인터넷에 산발적으로 게재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 역사 등에 관한 홈페이지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네트워크화 하여 정보수집과 자료검색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구축된 DB를 기반으로 네티즌들이 한국의 올바른 정보를 해외에 널리 알립니다.

한민족 네트워크망 구축 |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왜곡된 한국의 이미지를 인터넷을 통해 좀더 직접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반크는 전 세계 한인학생회, 동포자녀, 입양동포들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범세계적으로 한국을 바로 알기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교두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민족 웹진 발간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국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를 창출합니다. 한민족 웹진은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범세계화를 전담할 교두보이자,

전세계 100대 도시, 천 명의 사이버 외교 사절단 해외 특파원들이 참여하는 한민족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영자신문 PRKOREA Times 사업 | 한국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들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60만 명의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자신문을 만듭니다. 사이버 외교관들이 영자신문의 기자가 되어 전 세계 외국인에게 생생한 한국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

기존 추진사업의 이외에 전국 지자체와 연계한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전국 1만 5천 초중고 교 학교에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60만 군대 장병을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용사로!, 공무원 연수원에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활동전개, 미국 CIA 에 버금가는 한국판 세계 국가 및 지도 서비스 구축,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사이트 구축을 기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일이 정부의 일이라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해외 포탈 웹사이트에 sea of japan 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해보면 100만개가 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 때 저도 이를 방치한 정부도 원망하기도 해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컴퓨터를 꺼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입장에서 생각해도 우리나라 외교관이 2,000명 정도 임을 감안할 2천명이 백만 개의 오류를 다 시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외교관 숫자가 7,100명이고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 학계, 언론 등이 전 세계 중국인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하게 해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5450 명의 외교관에 세계 1위의 경제적 위상을 배경으로 일본해, 다케시마를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 왜곡을 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도 시간적으로도 일본과 중국에 비해 수십 년 뒤져있고, 인력, 예산 모든 것이 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 세계 60억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20만 명의 민간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일에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 해주었으면 합니다. ♣